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사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대불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대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발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897/8  
●PC통신: 인터넷부디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 경계 고달리는 마음 안으로 돌려놔야

### 불교·기독교 사이에서 방황

저는 서울에서 이번 해에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 온 학생입니다. 대학 2학년 때 한 마음 법을 알게 됐고 감사하게 생각하며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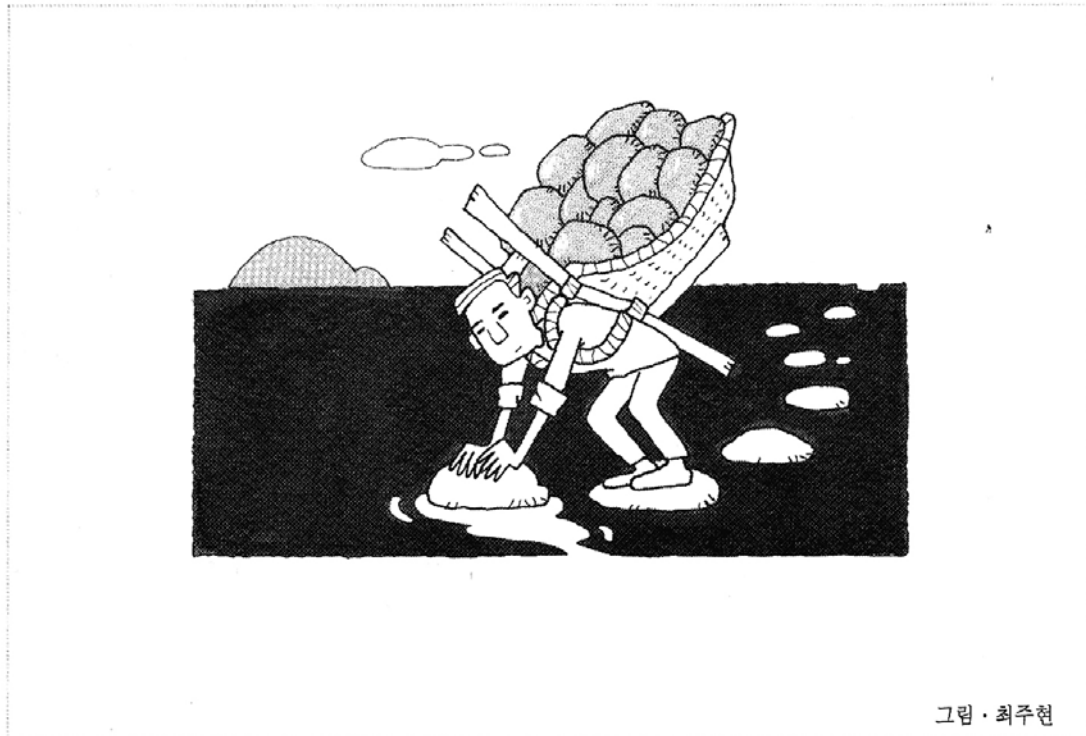
유학 오기전 작년 여름방학 때 학교를 알아보기 위하여 미국 이모택을 방문하였습니다.

그 때 이모의 권유에 못 이겨 함께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큰스님 법문 대로 부처님과 하나님을 둘 아닌 하나로 보고 열린 마음으로 그냥 주인공에게 모든 것

사이에 '법공양 페이지'를 읽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큰스님께 질문을 하여 한가지 확신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교든 기독교든 같은 것이고 하나의 산봉우리를 올라가기 위하여 여러 다른 길이 있듯이 하나의 진리를 향해 가는데 있어서 서로 종교 간에 다다른 방법이 다를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도 하나님도 모두 내 안에 계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심하지 않는 믿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에 나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성경책에 있는 내용을 의심하지



그림·최주현

'불'은 영원한 생명  
'교'는 생활도리이니  
이 삼천大千세계에  
불교 아닌게 없습니다

에게 사주가 이러하니 남에게 많이 베풀고 욕심과 고집을 버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후 첫발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1998년 12월 16일 새벽 4시 53분에 둘째 딸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기가 선천성 척추신경수막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금은 영등이 꼬리뱀 밑에 조그마한 혹이 있는데 아기가 자라면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허반신이 마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수술을 하여도 큰 기대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큰스님, 저는 이 말을 듣고 사위와 딸에게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것을 참회하고 앞으로 아기의 건강을 위해 바르게 생활하도록 할 것과 주인공에 관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큰스님 법문 모이든 것을 주면서 보라고 하니 딸애는 공감을 하는데 사위는 제 말을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큰스님, 도와주옵소서. 저와 딸애는 열심히 스님 가르침 대로 관하는 공부하겠습니다. 사위의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옵고, 이제 태어난 아기 정상적으로 자라 정상인이 되게 해주옵소서.

저희와 같은 어리석은 중생을 위해 많은 법문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픈 사람이나 옆에서 그것을 지켜보아야 하는 사람이나 다 전자에 자기가 지은 것을 현재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하여 말하기를 금은 금대로 모이고 무쇠는 무쇠대로 무쇠전에 모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그게 다 팔자운명이니 어쩔 수 없다고, 그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짓기도 내가 지은 것이니 녹이는 것도, 벗어내는 것도 다 내가 할 탓이지요.

전자에 내가 아무리 강동노릇을 했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강동으로 살라는 법

16면으로 계속

안으로 나를 발견하고 제발해서  
대자유인이 되는 길을 걸어야지  
밖으로 '살려주소' 하면 됩니까

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큰스님 법문과 비교하게 되고 모든 말씀을 내가 알고 있는 불교 지식에 다시 한번 걸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여기 나와 있다'라는 생각이 들자 그 다음 주부터는 교회에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흘러 어느 토요일 저녁 몸이 너무 아파 눕지도 앉지도 못하고 밤을 지새우며 앓고 있을 때 나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때 문득 내가 하나로 보지 못하고 마음의 갈등을 가졌던 것이 이렇게 몸 아픈 것으로 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을 고쳐 먹고 다음날부터 다시 교회에 나가자 마음이 편하고 몸도 금방 나아졌습니다. 여름방학이 끝날 무렵 한국에 돌아와 4학년 마지막 학기를 끝마치고 다시 미국에 와서 지금은 열심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님도 나와 둘 아닌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말입니다.

미국 오기 전 어머니에게 현대불교신문을 미국으로 부쳐줄 것을 부탁하고 왔는데 오늘 처음 신문이 도착했습니다. 너무 반갑고 저녁에 식구를 모두 집

말고 믿어야 한다고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생도 믿고 우주의 주인인 인간의 마음으로 지구를 살릴 수도 있고 멸망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지구 최후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지옥에 보낸다고 복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지구 내가 알고 있는 불교 지식과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대불교신문을 읽는 나를 보며 이모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어떻게 불교신문을 읽을 수 있느냐고 아담치자 지구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처럼 불교 교리와 기독교 교리 사이에서 방황할 때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할지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종교란 이름입니다. 불교든 천주교든 기독교든 다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불교'라고 할 때에 그 불교는 종교로서가 아니라 '불'하면 영원한 생명의 이치를 말하고 '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 짓기도 내가 지은 것 녹이기도 내가 할 탓 물질·정신계 돌아니게 탐험할 수 있어야

삼천大千세계에 불교 아닌 게 없습니다.

그런데 불교든 기독교든 잘못 가르치는 예가 많습니다.

말하자면 밖에서 대고 복을 받고 구원을 청하는 일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건 어떤 이름의 종교이든 잘못된 일입니다. 안으로 나를 발견하고 스스로 깨달아서 대자유인이 되는 길을 걸어야 밖으로 나 좀 살려주소, 도와주소 한다던 그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대신 밥먹어 줄 수 없고 대신 아파줄 수 없고 대신 잠자고 대신 똥 누어줄 수 없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하나님! 할 때도 그게 내 속의, 하나밖에 없는 내 님을 말

하는 것이지 어디 하늘에 따로 계신 그 누구를 말해서는 분명 잘못 가르치는 것이 되지요.

그래서 말인데 성당을 가든 성경책을 보든 하나님은 내 속에 하나님이지 밖에 따로 있지 않다 하고 안으로 들어오면 입으로 뭐라고 부르든 다 안으로 녹아들게 됩니다.

왜 불교책을 보느냐 하거든 거기에 영원한 생명의 이치가 담겨 있다. 종교로서 밖으로 비는 대상이 아니라 안으로 마음을 밝히는 길이다. 그러니 무슨 종교를 갖든 다 좋은 일이 아니냐고 일깨워 주시면 될 겁니다. 믿는 것도 나요, 깨닫는 것도 나이지 누구겠습니까?

### 난치병 걸린 딸 태어나...

저는 53세의 불자입니다. 저의 딸이라는 성격이 온순하고 착하며 성실하여 공부도 무척 잘한 자랑스러운 딸이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수원에 있는 모 회사에 입사하여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8살 나 이 차이가 나는 노총각과 결혼을 하였습니 다. 결혼 전 총각 사주를 보니 아주 나빴습니다. 명도 짚고 지식도 없다고 보시

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사주팔자는 착하게 바르게 잘 살면 고칠 수 있다는 큰스님 말씀을 믿고 무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결혼 직후 사위

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중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자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으로 중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

### 생활 속의 불교 203

## 글에 얽매어 실상을 못보면 덧에 걸린 것

부처님께서는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버려라"고 하셨다. 이 세상에는 강을 건너신 분들의 뗏목, 즉 가르침이 많이 남아 있다. 그렇지만 그 뗏목들은 강이쪽의 것이 아니라 강 저쪽의 것이다. 손짓을 해서 부른다고 건너편 뗏목이 내 앞으로 오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의 뗏목을 스스로 만들어 건너야 한다. 나의 뗏목이란 무엇인가. 내 참 마음이 나의 뗏목이다. 모든 것을 나의 근본에 맡기고 가는 것이 나의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너는 것이다.

경을 보되 그 경에서 참뜻을 놓치는 사람은 마치 창 밖의 꽃을 보고 유리에 머리를 부딪히다 죽는 벌과 같다.

말에는 한계가 있다. 글에도 한계가 있다. 우선 바로 알지 못하기 쉽고, 설사 바로 안다고 해도 사물의 이치는 너무 세세하므로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말을 들되 마음으로 들어야만 한다. 비유하자면 경을 읽는다는 것은 나무의 일세를 세는 것과 같고 경배한다고 함은 나무가지들을 만지는 것과 같다. 부처님께서는 일세와 가지를 말씀하심으로써 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다. 고로 뿌리에 물을 주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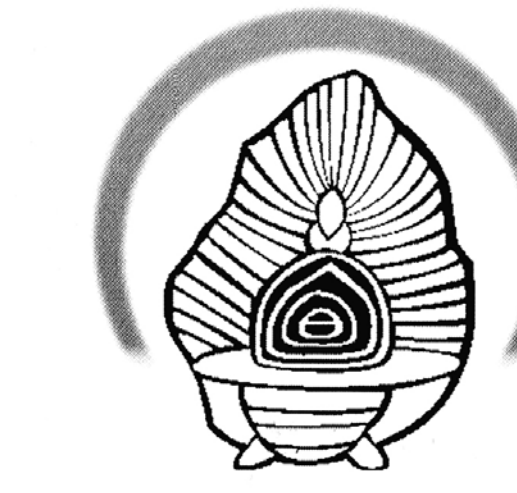
한다. 뿌리가 아니라면 나무는 죽는다. 꽃 피고 열매 맺는 도리도 뿌리에 있다. 일심으로 뿌리에 물을 주어야 한다.

금강경을 달달 외었다 해도 무위법의 뜻을 모르면 글자만 보고 따른 것이 부처님의 참뜻을 따른 게 아니다. 불교는 행이다. 경·율·론 삼장이 모두 행을 위한 설명인 것이다.

팔만 대장경을 모두 다 배우려면 재능 있는 사람도 20년이나 30년쯤 걸릴 것이다. 그러나 인생은 짧다. 고로 곧바로 마음 닦아라 하는 것이다.

주장자가 서서 자유로움을 느끼게 되었을 때는 경전을 보되 반야심경,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등을 보아라. 내 마음을 바로 밝혀 역력하게 나를 보았다면 옛 성현들이 말해 놓은 가르침의 방편을 참고해도 된다. 경으로 보되 보지 않고 경을 보지 않되 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이다. 내면 세계의 참 자기를 알고 보아야 경전을 보더라도 글과 백지를 둘 아니게 거머쥐고 볼 수 있다.

사람들이 울바로 안다면 과거에 선조들이 그렇게 많은 방편과 설법을 하지



도 않았을 것이고, 부처라는 이름조차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바로 알지 못하니깐 설법도 하고 염불도 있어야 하고 촛불도 밝혀야 했다. 현재도 그러한 방편을 다 따르는 게 예의로 되어 있지만 그 뜻을 바로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비단이 개발되어 진자에 유통이 되고 있는데 무명 짚을 방편을 고집하는 격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요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불의 길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방편을 덧 붙여 짐이 되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로켓을 타고 날으는 세상에 차도없어서 걸어가던 그때의 그 걸어간 얘기를 계속해야 할 것인가.

팔만 대장경에 문자로 기록되어 있어 서 진리가 아니다. 범종 돌리듯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게 팔만 대장경의 근본이자 진리인 것이다. 그러므로 돌아가는 실상 속에서 죽음이 되어야 하고 즉행(即行)이 되어야만 죽어(即如)라 할 수 있다. 그러기에 말 한마디 인도하기가 쉽지 않다. 스스로 실상 속에서 터득을 해야 자신이 들어가 본 곳에 남도 끌고 들어갈 수 있듯이 피안의 길을 인도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자신이 물의 깊이를 알지 못했을 때는 고작해야

시뮬만 내는 길잡이가 될 뿐이다.

경전이란 이 세계를 말해 놓은 것이다. 그런데 경전이 나타나자 사람들은 경전을 보느라고 실상을 보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예전의 선사 중에는 수좌들에게 처음에는 오히려 경전을 보지 못하게 하신 분도 있었다. 경 속에 빠져 헤어나지 못한다면 경전 별래배에 될 게 없다.

역대 부처님들이 방편으로서 수많은 말의 덧을 놓았지만 그렇게 가르치고자 한 뜻을 가버려 볼 수는 없다. 흔흔들 걸잡기에 치우쳐서 '본래 공인데 있기는 뭐가 있으며 불을 데가 어디 있는냐' 하지만 합부로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참으로 그것을 느낀 사람이라야만이 서슴없이 그렇게 할 수 있지. 느끼지 못한 사람이 흥내나 낸다면 그 업은 수억겁을 거쳐도 벗기 어렵다. 그러기에 나로부터 상구보리 하회중생 해야 한다. 내 몸 속에 있는 그 의식, 마음들을 한마음으로 뭉쳐서 요리한다면 그때에 바깥으로 남을 유익하게 조 절할 수 있는 것이다.

협찬: 주인공